

## 트럼프 이후의 라티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딜레마\*

박은영

서울대학교

박정원

경희대학교

박은영, 박정원(2022), 트럼프 이후의 라티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딜레마,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3(1), 137-161.

**초록** 브로드웨이의 대표적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1961년 영화화된 이후 반세기만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에 의해 리메이크되었다. 이 작품은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 지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투영한다.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 격화된 인종적 대립을 백인과 라티노 청년들이 벌이는 분쟁과 갈등의 드라마를 통해 성찰한다. 본 논문은 이 영화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미국 사회에 관한 스피버그의 세계인식과 라티노 공동체의 딜레마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21세기의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결합한 트럼프주의를 소개한다. 트럼프주의로 나타난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혐오의 재생산은 푸에르토리코인을 통해 형상화되는데, 영화는 적대적인 상황에 놓인 이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를 탐색한다. 또한, 1961년의 영화와 비교하여 푸에르토리코성(puertorriquenidad)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스피버그의 서사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 영화가 형상화하는 혼종성과 이중언어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트럼프주의를 넘어서는 영화적 상상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트럼프주의, 라티노, 푸에르토리코, 영토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142)

## I. 왜 21세기의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61년 영화화되어 성공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가 반세기 만에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타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에 의해 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약 5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영화는 2021년 12월 대중에 공개되었다. 많은 관심 속에 개봉된 것에 비해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비평계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와 함께 2022년 초에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코미디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아카데미상에서도 주요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동시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20세기의 뉴욕에 대입해 만든 비극적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 「투나잇(Tonight)」 등은 이 영화의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였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서사를 21세기의 감성으로 복원하는 것이 오십 년 만에 리메이크를 결정한 스필버그의 제작 의도는 아니었다. 영화잡지 버라이어티(*Variety*)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2015년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이런 측면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최근 미국의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트럼프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 이후의 인종적 대립을 백인과 라티노 청년들의 구역쟁탈을 묘사한 원작을 통해 성찰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같은 인터뷰에서 스필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뮤지컬의 배경이 된 과거 제트파와 샤크파의 분열은 심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만큼 대립이 격화되지는 않았었다. 대본을 쓰는 도중에 이 인종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

1) <The Underperformance of ‘West Side Story’: No, It’s Not Just Because Gen Z Doesn’t Like Musicals>, *Variety*, 2021년 12월 12일.

작품이 1957년보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2021년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분석하면서, 최근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에 관한 스피버그의 세계인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영화에서 그는 갈등의 한 축을 구성하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에 주목하면서 최근 강화된 토착주의(nativism)를 배경으로 한 라티노와 미국 사회의 관계를 화면에 옮겨 놓는다.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의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결합한 트럼프주의를 소개할 것이다. 이 트럼프주의는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를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 사회에서 ‘내국인’이자 ‘외국인’이라는 모순적 지위를 지닌 푸에르토리코인을 통해 형상화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푸에르토리코인을 포함한 라티노가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며, 특히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한 이들 공동체의 대응 양상과 정체성의 딜레마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1961년의 영화와 비교하여 푸에르토리코성(puertorriquenidad)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2021년 영화의 서사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피버그 감독은 등장인물과 이들의 대화, 그리고 극적 장치들 통해 혼종성과 이중언어주의(bilingualism)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서 본 논문은 라티노를 매개로 한 이 작품이 트럼프주의를 넘어 미국 사회의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적 상상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트럼프주의(Trumpism)의 등장과 라티노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미국 사회에서 가장 격화된 이슈 중 하나가 인종 문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경찰폭력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더욱 공개적이고 노골화된 구조적 인종 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번진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한 시위로 기록되었다.<sup>2)</sup> 하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집권하기 전부터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해 공공연한 반감과 혐오를 드러내었다. 특히, 그 표적에는 최근 이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멕시코인들을 비롯한 라티노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선 후 트럼프는 이를 언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페인어 버전을 삭제해 버리는 상징적인 조치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부터의 이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더 “크고 아름다운 장벽(big, beautiful wall)”을 설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sup>3)</sup>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사회적 분열을 봉합하려는 시도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 동안 백인과 유색인, 내국인과 외국인, 정착민과 이민자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미국 사회에 상당한 상흔과 여파를 남기고 있다. 그가 보여준 새로운 방식의 정치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 트럼프주의(Trumpism)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그의 개인적 통치 스타일이나 언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2010년 이후 가시화된 정치적 기획 혹은 일종의 운동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Gonzales 2017, 147). 트럼프주의는 우선 지난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국境的 개방으로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미국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던 백인 남성과 노동계급의 불안감은 토착주의와 민족주의적 정동(情動)을 자극하였다. 그 결과 외국으로 나갔던 공장을 자국의 영토 안으로 불러들이고 국境的 통제를 강화하자는 트럼프에 열광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2) <Black Lives Matter May be the Largest Movement in U.S. History>, *New York Times*, 2020년 7월 3일.

3) 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토착주의와 함께 트럼프주의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운동과 결부되었다. 미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태도와 조치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고 자신들의 권리가 ‘희생’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현재 우리는 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적 언사와 행위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에 도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분출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도하고 있다. 사적 영역이 보호되고 확장될 때, 제한과 규정을 거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 될 때, 사회적인 것이 비하되고, 정치적인 것이 악마화될 때, 역사적 지배권을 가졌던 백인 남성의 힘과 적대감이 분출되고 합법화된다. (Brown 2018, 67)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한 형태는 자신들의 주도적 지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백인 남성들의 반격 현상, 즉 백래시(backlash)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티노 연구자인 알폰소 곤살레스(Alfonso Gonzales)는 트럼프주의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을 비롯하여 여성, 장애인, 이민자,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Gonzales 2017, 149). 2015년을 기점으로 백인은 미국 전체인구 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유색 인종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와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이들은 반감을 혐오라는 형태로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공적 영역을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

트럼프주의의 두 번째 현상은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개적 차별과 혐오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백인 남성을 비롯한 주류 세력을 옹호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저항하는 소수자들의 시위나 요구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트럼프주의를 권위주의적 자유주의(authoritarian liberalism)로 명명한다. 백인 남성이나 기존 지배세력의 제한 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민주적 공간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위주의와 기묘하게 동거하는 21세기 정치형태로서 트럼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Brown 2018, 67).

시민권을 제한하는 이민정책의 강화와 단속으로 라티노들의 공적 공간은 크게 위축되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문제의 포용적 해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2001년 시작된 드림 액트(Dream Act)를 지속함으로써 젊은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로 편입하여 이들이 장차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확장하려고 하였으며, 미등록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입안하여 라티노 청년들의 무조건적 추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법령과 제도를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무효화 하였다. 이에 더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구금 센터와 시설을 확장하면서 매일 4만에서 5만 명의 이민자가 구금되었으며, 유아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비합법적 방식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범죄자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토론에서 그는 스페인어를 사용해 이들을 ‘bad hombres’로 지칭하면서 “이곳 미국에는 나쁜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지칭했지만, 실제로 그 대상의 범위는 훨씬 더 확장된다. 이민자 출신 그룹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지는 라티노 공동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최대 소수인종임에도 라티노는 이방인,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침입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스테파니 카니살레스(Stephanie Canizales)

와 조디 바예호(Jodi Vallejo)는 이를 트럼프 시대에 라티노가 다시 한번 ‘인종화(racialization)’ 혹은 ‘재인종화’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Canizales & Vallejo 2021, 153). 외부인 혹은 국외자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라티노는 ‘일반적’인 미국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시민권과 교육, 보건, 복지를 누릴 권리로부터 배제되어도 되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위치로 강등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티노 공동체 내부에서의 결속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들은 민족적 기원에서의 차이와 다양성 및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현실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 III. 보이지 않는 뉴욕의 국경과 영토성

이런 측면에서 백인 청년과 젊은 푸에르토리코 여성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트럼프 시대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된다. 감독 스피버그는 1961년 작품의 뼈대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원작에서 은유적으로 형상화되었던 인종적 갈등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서사 전략을 택한다. 이는 영화의 초반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1950년대 뉴욕의 재개발 지구를 재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약 6분 동안 진행되는 첫 시퀀스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듯 라티노에 대한 백인들의 증오와 공격의 현장을 묘사한다. 공사 현장에서 출발한 백인 제트파는 거리를 돌며 무리를 규합하여 라티노 거주지역으로 들어선다. 스페인어로 채워진 간판과 라티노들로 가득 메운 거리를 가로지르고 경고 신호를 보내며 위협을 가한다. 상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집어 들고, 스페인어로 된 식당의 간판을 떼어내 과거에는 이곳이 백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시위하듯 드러낸다. 이들이 동네 공터로 들어와 한 행위는 더 상징적이다. 이들은 흙친 페인트를 쏟아 벽에 그려 놓은 커다란 푸에르토리코 국기와 벽화를 훼손해 버린다.



〈그림 1〉 스페인어 식당 간판을 떼어내는 제트파



〈그림 2〉 푸에르토리코 국기와 벽화의 훼손

백인들의 습격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푸에르토리코인으로 구성된 샤크파의 등장과 대립은 어렵지 않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캐플렛 가문과 몬테규 가문이 벌이는 극단적 갈등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현재의 백래시 상황을 보여준다. 영화의 초반부에 재현된 두 집단 사이의 분쟁은 경찰의 개입으로 중단되고 진정된다. 제트파에게 경시청장은 자신이 백인들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임을 각인시킨다. 백인 중산층들이 도시의 외곽으로 떠나고, 그 자리에 흑인과 라티노가 들어와 정착하면서 머지않아 이들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흐름에 편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저소득층 백인들에게 라티노들은 침입자이자 위협적 존재로 다가온다. 스피버그는 백인 청년들로 구성된 제트파를 통해 트럼프 시대에 백인 노동계급과 남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형상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드러내는 반감과 증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결과로 재현되는 뉴욕은 혼종과 뒤섞임, 소통과 공존으로 정의되는 인종, 계급, 젠더, 민족의 용광로가 아니다. 오히려 반목으로 나누어진 갈등과 분열의 공간이다. 영화는 이 범세계적 도시에 실재하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국경<sup>4)</sup>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의 재개발 지구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4) 이는 세라 모스가 최근 발표한 소설 『유령의 벽』과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작품 설명에서 역자 이지에는 작가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세우려고 했던 벽, 그리고 브렉시트를 비롯해 현재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는 타자에 대한 유형무형의 벽들이 ‘유령의 벽’과 다르지 않으며, 이 벽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막는 기능을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수행하기보다는 적대의 뜻을 전하는 신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세라 모스 2021, 197).

일종의 전장(battle ground)으로 영화 속에서 기능한다. 스피버그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미학적 장치로 1961년 영화가 주로 뮤지컬 세트에서 촬영된 것에 반해, 인종적이고 계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를 선택하고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도 인종적·민족적 배경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폴란드인 등 유럽 출신의 인물들을 제트파 백인으로 묶어내는 한편, 푸에르토리코인들을 통해 라티노 그룹을 상징화한다. 그러면서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도미니카인, 쿠바인들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인에게 차별받고,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하위주체로서 라티노들이 처한 공통적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요리칸(Nuyorican)이라고도 불리는 뉴욕의 푸에르토리코 공동체는 라티노 역사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푸에르토리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모든 국민이 미국인이기도 한 이중적 조건이 허용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인이자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인인 이 이중정체성의 기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8년에 벌어진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후 스페인 치하에서 누리던 푸에르토리코의 자치권은 오히려 축소되고 종속된 경제체제가 가동되었다. 담배와 커피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제는 미국의 주도하에 사탕수수 단일작물 경제로 재편되면서 국가 경제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주로 소규모의 자영농이었던 현지인들은 소작농의 위치로 변하였으며,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20세기 중반까지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Dietz 1987, 110-111). 푸에르토리코인의 뉴욕행은 1917년으로부터 출발한다. 맨해튼 북동부의 할렘 지역에 바리오(barrio), 혹은 콜로니아(colonia)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점진적인 이주가 진행되면서 뉴요리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대내적으로는 페드로 알비수 캠퍼스(Pedro Albisu Campus)가 주도하는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이들의 이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46년 전후에서 시작하여 1960년까지 약 100만 명이 미국으로 들어갔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비행이민”으로 정의된다(곤살레스 2014, 180). 여권의 소지 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이주는 여타의 라틴아메리카인과 구별될 수 있다. 법적으로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인들을 비롯하여 먼저 정착해 있던 백인들에게 이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할렘 지역은 인종 간의 갈등의 공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61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담아낸다. 뉴욕 하층계급의 거주지역을 둘러싸고 벌이는 긴장과 대립 속에서, 인종갈등의 당사자인 백인 청년 토니와 푸에르토리코 여성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 그리고 영토성 획득을 위한 과정을 보여준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푸에르토리코판 <국가의 탄생>(1915)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 청년들을 범죄 집단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단선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공 마리아 역으로 나온 백인 할리우드 스타 나탈리 우드가 어두운 색조 화장을 하고, 어색한 스페인어식 영어를 구사한 점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에 공분을 일으킨 요인이 되었다(Brown 2010, 195). 하지만 프란세스 네그론-문타네르(Francesca Negrón-Muntaner)와 같은 연구자들은 영화를 보고난 후 수치심을 느꼈다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영화적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관한 공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이정표와 같은 작품으로 평가한다. 또한, 최초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그려내고 적어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푸에르토리코인을 사회적 주체로서 주류사회에 등장시켰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Negrón-Muntaner 2000, 85-86). 즉, 비록 부정적이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던 이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존재와 영토성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IV.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정체성과 딜레마

2021년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원작의 정형화된 재현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캐스팅, 배경, 언어의 사용 등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스피버그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 본토를 방문하여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리메이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역사적 진정성(authenticity)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sup>5)</sup> 이러한 시도는 인물을 재현하는 측면이나 대사를 구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sup>6)</sup> 영화는 이야기의 전개와 주제적 측면에서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 문제와 차별과 분리에 대응하는 딜레마를 담아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부여받는다. 미국인이기에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의회 투표권과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온전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언어적, 인종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이민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 즉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존재론적 ‘불안감’이라는 정서를 체현하게 된다는 것이다(곤살레스 2014, 532). 이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분석되기도 한다. 파트리시아 제로비치(Patricia Gherovici)는 『푸에르토리코 신드롬(*The Puerto Rican Syndrome*)』을 통해 세대를 넘어 푸에르토리코인에 각인된 정신적인 층위에서의 심리적 상흔과 고민을 논의한다. 식민주의적 역사를 통해 부여된 푸에르토리코인이자 미국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아의 분열 상황(schizophrenia)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Gherovici 2003, 21).

5) <Steven Spielberg Met With Puerto Ricans About ‘West Side Story’ Concerns, *Hollywood Reporters*, 2019년 1월 15일.

6) 물론 이 작품이 외부적 시선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또한, 트럼프 시대의 라티노가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푸에르토리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인에게 이 신드롬은 심화된다.

이는 영화 주인공들의 내면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댄스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두 청춘남녀, 과거 제트파에 속했던 토니와 샤크파의 리더를 오빠로 둔 마리아는 두 집단 사이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날 밤, 토니는 파티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간 마리아를 찾아다니다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다. 흥미롭게도 토니가 이 푸에르토리코 여성에게 직진하는 반면, 마리아는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토니에게 주지시키며 스스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마리아의 태도를 전통적 여성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백인 사회에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회의감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에도 등을 돌릴 수 없다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니와 달리 마리아의 사랑에는 국민이면서도 이방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과 분열적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마리아는 미국 사회의 평등한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의 기표 역할을 한다. 이에 그녀의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소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를 벗어난 뉴욕의 지하철, 파티장, 공원과 성당, 백화점 등 미국인들의 일상적이고 공적인 공간이다. 그녀는 공동체 바깥의 사회에 섞여들어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을 이중정체성을 지닌 ‘뉴요리칸’이 아닌 ‘푸에르토리코인’으로만 규정하려는 오빠 베르나르도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는 베르나르도와 여자 친구 아니타의 논쟁으로 연결되고, 이를 형상화한 춤곡 「아메리카(America)」가 나온다. 5분여 동안 진행되는 이 음악 시퀀스는 푸에르토리코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논의하며 영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마리아를 옹호하는 아니타는 기회의 땅인 뉴욕에서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데 반해, 베르나르도는 이등 시민으로 차별받는 것보다는 푸에르토리코 섬으로 돌아가는 편을 택하겠다고 답한다. 즉, 푸에르토리코 공동체가 갖는 모빌리티(mobility)와 그 딜레마를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961년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성훈은 이 노래에 지배문화의 전략이 숨어있

다고 지적한다. 아니타가 욕망하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었다는 것이다(이성훈 2007, 370). 이러한 비판에는 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 2021년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스피버그는 아니타가 부르는 이 노래의 도입부를 “푸에르토리코, 온 맘으로 사랑한 곳/ 바다에나 잠겨버리라지/ 늘 허리케인이 휩쓸고/ 늘 인구는 늘어나고/ 빛에 허덕이고/ 태양이 내리쬐고/ 주민들은 늘 땀 흘리는 곳”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랑스러운 섬/ 열대의 산들바람이 불고/ 늘 파인애플이 자라고/ 늘 커피 꽃이 피어나는 곳/ 빛에 허덕이고/ 아기들이 울어대고/ 총알이 날아다니지”로 변경한다.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은 대사를 걷어내면서 뉴요리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공존하고 싶은 욕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화 세트 역시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내부를 더 잘 보여준다. 1961년 영화에서 위의 장면은 빌딩 옥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진다면, 스피버그는 대낮의 푸에르토리코 거주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아니타와 베르나르도 일행은 아파트에서 거리로 나와,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곳곳에 내걸린 중심 교차로를 지나 이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시위를 벌이고, 생활하는, 즉 자신들이 건설한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세대, 피부색을 지닌 푸에르토리코인이 함께 등장한다. 이 노래와 군무의 마지막에서는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들까지 등장해 춤을 추는데, 이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장면은 자신들의 양가성과 이중성을 인정하며 뉴욕에서 생존해 나가려는 의지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즉, 2021년의 <아메리카>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대신에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가 양립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들은 백인들의 혐오와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체트파는 폭력을 상징하는 총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다. 리더인 리프의 대사 “우리는 가장 위대하다(We are the greatest)”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선거에서 내건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한다.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를 표지판으로 내걸며, 거리의 영원한 주인은 자

신들이라고 노래하는 장면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자신들을 지키는 방어적 민족주의의 방식이 영화 속에 제시되며, 이는 베르나르도를 비롯한 샤크파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가 백인 제트파의 경우는 갱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반해,<sup>7)</sup> 샤크파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제트파와 대립한다는 점에서 갱단으로 그리면서도, 이들은 권투선수, 점원, 노동자 등 각자 직업을 가진 인물들로 푸에르토리코 공동체를 지키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경찰과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페드로 알비수 캄포스의 구호인 “조국은 용기와 희생이다(La patria es valor y sacrificio)”를 외치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1960년대 후반 푸에르토리코의 급진적 청년 단체인 영로드당(Young Lords)을 연상하게 한다.<sup>8)</sup> 이렇게 스피버그는 샤크파를 갱단이라기보다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급진적 청년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벽화, 노래, 독특한 패션과 언어적 표현을 복원해 내는데, 이들 공동체의 일상인 동시에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기도 하다(Laó-Montes 2001, 128).

2021년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과 백인들의 배제와 적대로 인해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향 사이에서의 긴장과 딜레마를 조명한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은 치노이다. 1961년 영화와 달리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입체적인 성격으로 등장하는 그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베르나르도는 자신들과 달리 치노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종간의 갈등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치노는 회계사가 되

7) 실제로 이 영화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 에피소드를 통해 제트파 백인 청년들의 시선과 입장 역시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젊은 갱단에 속하게 된 사연과 자신들만의 영토와 공간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8) 당대 라티노 대중과 활동가들에게 더 큰 지지를 얻은 이들 급진적 세력은 기득권인 백인들과의 타협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 정착하는 전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세력화와 단합, 투쟁을 통해 백인 사회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어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 선택을 포기하고 샤크파의 일원이 되어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편에서 백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베르나르도의 죽음을 되갚기 위해 결국에는 토니를 죽이고 만다.



〈그림 3〉 “네 나라로 꺼지라!”고 말하는 제트파



〈그림 4〉 푸에르토리코인임을 강조하는 아니타

이러한 딜레마는 아니타에게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아메리카」에서도 알 수 있듯, 맨해튼을 사랑하는 뉴요리칸으로서 그녀는 미국 사회로의 진입과 공존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마지막까지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 즉 두 인종 간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의 중반부에서 아니타는 토니와 함께 떠나기를 제안하는 마리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토니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제트파에게서 성적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이들에게 “네 나라로 꺼져(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라는 말을 듣자, 아니타는 이들을 향해 “난 여기서 살고 싶은 줄 알아? ... 천만에. 나는 미국인이 아니야. 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야.(You think I want to stay here? ... No gracias. Yo no soy americana. Yo soy puertorriqueña.)”라고 대답한다. 고통과 슬픔, 분노가 뒤섞인 아니타의 대답은 이중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이 좌절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백인들의 차별과 몰이해, 멸시로 인해 한쪽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이기도 하다.

두 세력 간의 폭력으로 치달은 영화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스피클버그는 폭력과 비극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양비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갈등의 원인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에서 방어적 민족주의가 강화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백인우월주의와 토착주의에서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배제와 증오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동화’(assimilation)되거나, 혹은 ‘저항’해야 하는 허구적인 이분법을 형성화 한다. 그 결과로 인해 트럼프주의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나아가서는 라티노의 딜레마적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 V. 경계를 넘는 주체와 이중언어주의의 가능성

영화의 비극적 결말은 출구가 없는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스피버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새로운 주체와 현실 변화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물들은 영화의 주요한 테마인 인종적 분리와 분열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특히, 여성 인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1년의 영화에서 주인공 마리아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자신의 행복이 토니의 사랑을 받는 것의 여부에 달린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반면, 반세기 뒤의 마리아는 아버지를 돌보고, 오빠에게 자신 역시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인물이다. 전통적으로 라티노 공동체의 보호자인 남성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아니타와 함께 여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021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새롭게 등장하는 발렌티나도 그 중 하나이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면서 백인 남자와 결혼한 인물로 주류 백인 사회와 라티노 문화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온 토니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의 멘토가 되어 마리아와의 사랑을 이해하고 충고를 해준다. 자신의 스페인어 말투를 흉내 내는 토니에게 자신은 백인과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그링가(백인)’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인이라고 답하면서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자긍심을 알리고 교육하는 문화적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두 세계에 놓인 벽 사이에 틈을 만드는 여성 인

물을 창조한다.

또한, 영화에서 에니바디로 명명되는 인물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원작 영화에서는 남자처럼 행동하는 톰보이의 막연한 이미지로 등장하여 전통적인 연극의 광대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스피버그의 작품에서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지닌다. 혹은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누구도 될 수 있는 인물이다. 여성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트파에 속하고 싶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과 그를 범주화하는 사회 집단이 다르며, 속하기를 열망하는 집단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제트파와 샤크파, 백인과 라티노 주위를 맴돈다. 제트파의 일원에게 ‘생물학적인 재앙’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던 에니바디는 치노가 토니를 죽이려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트에게 알려주었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에니바디는 중요한 인물을 가리키는 썸바디라는 표현의 반대되는 아무나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품에서 에니바디는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에게 주어질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동시에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며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의 인물이다. 그 누구도 아니라는 에니바디의 단점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열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 밑거름이 되는 인물이다.

스피버그의 2021년 작품에서 주목할 또 다른 특징은 언어를 통한 가능한 세계의 확장이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여자주인공을 선발하기 위해 감독이 내세운 단 두 가지의 조건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과 스페인어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sup>9)</sup> 뮤지컬 영화의 특성상 가창력은 대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스페인어 능력은 1961년의 영화를 촬영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창한 스페인어로 연기하는 나탈리 우드를 당시의 관객들이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9) <La María de Spielberg para su ‘West Side Story’ es latina, de 17 años y tiene canal propio en YouTube>, *El País*, 2019년 1월 21일.

하지만 21세기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위해서 라티노 문화와 세계관을 담은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스피버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자막 보기를 불편해하고 영어로 된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의 미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자막 없이 노출하고 있고, 이것은 우연의 소산이 아닌 감독의 명확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0)</sup> 도리스 소머(Doris Sommer)는 “다른 언어들 을 들으면 질색하는 한 특정 언어의 인식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단일 언어 중심 사회의 폐쇄적 태도를 평가한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무례 함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러한 편협함이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지적인 경직성이라고 설명한다(Sommer 2002, 10-11). 베르나르도의 죽음 이후 아니타가 발렌 티나의 가게에 가서 스페인어로 말하며 그녀를 찾자 그곳에 있던 제트파 구성 원 모두가 격분하는 모습도 원작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고, 단일 언어 사용자의 분노를 표출해내게 되는 계기에 스페인어 사용이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논 한 것을 확인시켜준다. 단일 언어를 고집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더 뿌리 깊은 정 치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허용되는 기본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규 칩은 단일 언어인 영어가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외부의 언어들 은 결국 영 어로 향해가기 위해 한정적으로 그리고 과도기적으로만 용인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 전제 하에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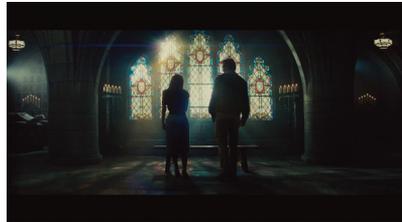
영화 속에서 마리아가 스페인어를 쓸 때마다 아니타에게서 영어를 사용하 라는 요구를 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는 이러한 강박적 상황을 반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수많은 대화가 스페인어로 계속된다. 이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일상생활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sup>11)</sup>

10) 봉준호 감독은 2020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 면서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막을 뛰어넘으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 해 이를 시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 생각거리를 던진 바 있다. 영어 중심의 사고와 함께 자막이 들어가는 영화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미국인의 귀에 이 말이 놀라움으로 다가갔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어를 모르는 미국의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대화의 내용을 유추하거나 맥락을 통해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런 장치를 통해 관객은 영어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언어는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를 반영하며,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 균형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이 영화에서 자막의 제거와 그로 인해 다수자가 소수자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스피버그의 전략은 단일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직된 세계를 뒤흔들어 스크린을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림 5〉 스페인어를 배우는 토니



〈그림 6〉 두 언어로 결혼서약하는 토니와 마리아

2021년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스페인어에 자막을 달아주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언어 세계의 확장을 제안한다. 토니는 마리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스페인어로 하기 위해 발렌티나에게 스페인어를 배운다. 다수자 언어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수월하고 익숙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포기하고 소수자의 ‘어려운’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역동화된 방식을 통해 인종적 장벽을 허물려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이중언어주의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로 해석될 수

11) 미국의 정치적 영향 아래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미국정부 관련 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하였다면, 스페인어는 푸에르토리코 정부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면서 일정 정도 사용 범위가 구분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는 이들의 모국어로서 ‘문화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논의되고, 스페인어의 우위를 문제 삼는 일은 ‘국기를 태우는 일’로 간주되었다. <Puerto Rico Makes the Switch to Spanish>, *Los Angeles Times*, 1991년 10월 13일.

있다. 이는 토니와 마리아가 교외의 성당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둘 사이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한 명은 영어로, 다른 한 명은 스페인어로 생각한다. 그러다 토니는 적어온 스페인어를 서툴게 말하며 그 간격을 좁히려 한다.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묻고, 따라하고, 흉내 내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 이들은 서로의 말과 진심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서약이 완성된다. 즉,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두 세계는 공존 가능한 하나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 영화는 언어의 문제를 제기한다. 인종 대립을 야기하는 언어의 갈등이라는 이슈를 자막의 제거라는 이례적 방식을 통해 정면에서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중언어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VI. 결론

2020년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라티노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가장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시청한다는 미식축구 결승전 도중에 열리는 이 축하 공연은 팝스타들이 가장 선망하는 무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해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쇼에는 대표적인 라티노 여성 가수인 제니퍼 로페스와 샤키라가 초대되었다. 이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자신의 대표곡들을 번갈



〈그림 7〉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국기가 그려진 망토를 입고 공연하는 제니퍼 로페스

아 부르는 가운데 특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제니퍼 로페스가 미국 국기가 디자인된 커다란 망토를 입고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다 옆의 댄서들이 그 의상을 벗겨서 펼치자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나타난 것이었다.

로페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는 계획된 퍼포먼스였으며 자신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자신은 미국인이지만,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인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망토 의상의 앞뒷면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국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세기 푸에르토리코의 현대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여준다.

스필버그 감독은 트럼프의 집권과 이후 고조되는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세기 전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한다. 그는 과거 라티노와 푸에르토리코인에 대한 정형화된 재현을 넘어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공동체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시선을 통해 현대 미국 사회에서 라티노가 겪는 딜레마와 적대적 상황 속에서 증대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스피버그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라티노들이 직면하는 차별과 억압,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좌절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할리우드 영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라티노의 성장과 존재를 가시화하는 최근 미국 대중문화의 경향과 발맞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감독 스피버그는 현재의 인종갈등을 1961년의 작품과 같이 양비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대신 긴장과 갈등을 재생산하는 원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사회적 약자와 소수인종을 차별하고 혐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트럼프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관지어 형상화하고 있다. 비극으로 마감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현재의 갈등과 증오,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경

12) <Jennifer Lopez Reveals Why She Featured Dual American-Puerto Flag Cape Kids in Cages During Super Bowl Halftime Show>, The Hollywood Reporter, 2020년 10월 15일.

고이자, 현실에 대한 감독의 우려를 반영한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로부터 희망을 확인하고자 한다. 타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발견하는 토니와 마리아와 같이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고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노력을 제안한다.

『이중언어 게임(Bilingual Games)』에서 도리스 서머는 이중언어주의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적하고 그것의 장점을 설명한다.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진 문화와 세계관까지를 함께 배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더 갖게 됨으로써 이해와 사고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ommer 2003, 4). 즉, 이중언어와 문화는 통일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의 개척과 인간 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제니퍼 로페스는 자신이 지닌 이중정체성의 딜레마를 수용하고, 이를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확장된 세계로 나아간다. 차이에 대한 급진적 이해와 더 많은 세계를 미국 사회로 받아들이는 스피버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미국 사회가 인종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름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며, 이를 자신에게 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영화는 제안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세라 모스(2021), 『유령의 벽』, 이지예 옮김, 프시케의 숲.
- 이성훈(2007), 「1960년대 영화에 나타난 라티노에 대한 인종주의-〈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알라모〉를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No. 43, pp. 365-378.
- 후안 곤살레스(2014), 『미국 라티노의 역사』, 이은아·최해성·서은희 옮김. 그린비.
- Brown, Kennaria(2010), “West Side Story Read From Below: Young Puerto Rican Women’s Cultural Readings”, *The Communication Review*, No. 13, pp. 193-215.
- Brown, Wendy(2018), “Neoliberalism’s Frankenstein: Authoritarian Freedom in

- Twenty-First Century ‘Democracies’”, *Critical Times*, No. 1:1, pp. 60-77.
- Canizales, Stephanie L. and Jody Agius Vallejo(2021), “Latinos & Racism in the Trump Era”, *Daedalu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No. 150:2, pp. 150-164.
- Gherovici, Patricia(2003), *The Puerto Rican Syndrome*, New York: Other Press.
- Gonzales, Alfonso(2017), “Trumpism, Authoritarian Neoliberalism, and Subaltern Latina/o Politics”, *Aztlán: A Journal of Chicano Studies*, No. 42:2, pp. 147-163.
- James Dietz. 1987, *Economic History of Puerto Rico: Institutional Change and Capitalist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ó-Montes, Agustín(2001), “Niuyor: Urban Regime, Latino Social Movements, Ideologies of Latinidad”, in Agustín Laó-Montes and Arlene Dávila (Eds.), *Mambo Montage: The Latinization of New York C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19-157.
- Negron-Muntaner, Frances(2000), “Feeling Pretty: West Side Story and Puerto Rican Identity Discourses”, *Social Text*, 63 (Vol. 18, No. 2), pp. 83-106.
- Sommer, Doris(2002), “Bilingual Aesthetics: An Invitation”, *Profession*, pp. 7-14.
- \_\_\_\_\_(2003), *Bilingual Games: Some Literary Investig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est Side Story*(1961), Dir. Robert Wise. The Mirisch Corporation.
- \_\_\_\_\_(2021), Dir. Steven Spielberg. Amblin Entertainment.
- <Black Lives Matter May be the Largest Movement in U.S. History>, *New York Times*, 2020년 7월 3일.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7/03/us/george-floyd-protests-crowd-size.html>
- <First Latina SAG film actress winner Ariana DeBose: ‘Doors are opening’>, NBC News, 2022년 3월 1일. <https://www.nbcnews.com/news/latino/first-latina-sag-film-actress-winner-ariana-debose-doors-are-opening-rca17930>
- <Jennifer Lopez Reveals Why She Featured Dual American-Puerto Flag Cape Kids in Cages During Super Boal Halftime Show>, The Hollywood Reporter, 2020년 10월 15일.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general-news/jennifer-lopez-reveals-why-she-featured-dual->



# *West Side Story* and the Dilemma of Puerto Rican Community in the Post-Trump Era

**Eunyou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won Park**

Kyung Hee University

Park, Eunyoung and Park, Jungwon(2022), “*West Side Story* and the Dilemma  
 of Puerto Rican Community in the Post-Trump Er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1), 137-161.

**Abstract** *West Side Story*,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Broadway Musicals,  
 was recently remade by Steven Spielberg after half a century. The film actively  
 reflects the changes in the American sociopolitical landscape of the post-Trump  
 era. Racial confrontations intensified in the Trump years are contemplated through  
 the young latinos' drama of conflicts and feuds counter the white boys.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discusses Spielberg's perception of the world and the  
 dilemma of the latino commun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vie. For that, we  
 introduce Trumpism which is a new merge of 21st century nativism into an  
 ideology. It's characteristic reproduction of hatred towards foreigners and  
 immigrants is embodied in the way the white society treats the Puerto Ricans  
 in the film and the movie explores the identity issues of this community. In addition,  
 we analyse the narrative strategy of the director who put more highlights on the  
 'puertorriquenidad' compared to the movie made in 1961. Lastly we reexamine  
 the potentiality of the hybridity and of the bilingualism represented in the film and  
 discuss the cinematic imaginations that can go beyond the Trumpism.

**Key words** *West Side Story*, Trumpism, Latino, Puerto Rico, territoriality